







# 공동사에서 **우리 인민은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해내는 영웅적인민이며 자기의 숭고한 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는 사소한 답보도 모르는 백철불굴의 인민이다.**

## 대교조선군길에 라오르는 애국의 불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적이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기풍입니다.》

간선의 새해의 첫날은 크나큰 격동속에 밝았다. 격동속의 새해는 심장이 지퍼올리는 증상의 불길로 새해를 맞이하는 어머니조국에 축복의 인사를 드린 간선의 로동자, 그들과 함께 맞고보던 격동적인 이해의 첫머리가 우리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러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1강철직장 사람들은 사람들로 북비었다. 용을 쓰는 전기로들, 잠입물바가지들 물고 분주히 오가는 천정기둥들, 혁신의 소식을 전하는 방송원의 격동적인 목소리...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초고전력전기로의 동등높은 1강철직장으로 달려나오는 수많은 강선사람들로 하여 현장은 사람바다를 이루고있었다.

빛나는 한해의 결속과 격동적인 새해의 시작을 경축하게 될 쇠물복포를 보지 않고서야 어찌 강선사람이라고 하랴. 기업소책임일꾼들과 로동자

들은 새해의 첫날은 크나큰 격동속에 밝았다. 격동속의 새해는 심장이 지퍼올리는 증상의 불길로 새해를 맞이하는 어머니조국에 축복의 인사를 드린 간선의 로동자, 그들과 함께 맞고보던 격동적인 이해의 첫머리가 우리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러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1강철직장 사람들은 사람들로 북비었다. 용을 쓰는 전기로들, 잠입물바가지들 물고 분주히 오가는 천정기둥들, 혁신의 소식을 전하는 방송원의 격동적인 목소리...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초고전력전기로의 동등높은 1강철직장으로 달려나오는 수많은 강선사람들로 하여 현장은 사람바다를 이루고있었다.

빛나는 한해의 결속과 격동적인 새해의 시작을 경축하게 될 쇠물복포를 보지 않고서야 어찌 강선사람이라고 하랴. 기업소책임일꾼들과 로동자

들은 새해의 첫날은 크나큰 격동속에 밝았다. 격동속의 새해는 심장이 지퍼올리는 증상의 불길로 새해를 맞이하는 어머니조국에 축복의 인사를 드린 간선의 로동자, 그들과 함께 맞고보던 격동적인 이해의 첫머리가 우리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러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1강철직장 사람들은 사람들로 북비었다. 용을 쓰는 전기로들, 잠입물바가지들 물고 분주히 오가는 천정기둥들, 혁신의 소식을 전하는 방송원의 격동적인 목소리...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초고전력전기로의 동등높은 1강철직장으로 달려나오는 수많은 강선사람들로 하여 현장은 사람바다를 이루고있었다.

빛나는 한해의 결속과 격동적인 새해의 시작을 경축하게 될 쇠물복포를 보지 않고서야 어찌 강선사람이라고 하랴. 기업소책임일꾼들과 로동자

들은 새해의 첫날은 크나큰 격동속에 밝았다. 격동속의 새해는 심장이 지퍼올리는 증상의 불길로 새해를 맞이하는 어머니조국에 축복의 인사를 드린 간선의 로동자, 그들과 함께 맞고보던 격동적인 이해의 첫머리가 우리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러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1강철직장 사람들은 사람들로 북비었다. 용을 쓰는 전기로들, 잠입물바가지들 물고 분주히 오가는 천정기둥들, 혁신의 소식을 전하는 방송원의 격동적인 목소리...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초고전력전기로의 동등높은 1강철직장으로 달려나오는 수많은 강선사람들로 하여 현장은 사람바다를 이루고있었다.

빛나는 한해의 결속과 격동적인 새해의 시작을 경축하게 될 쇠물복포를 보지 않고서야 어찌 강선사람이라고 하랴. 기업소책임일꾼들과 로동자

들은 새해의 첫날은 크나큰 격동속에 밝았다. 격동속의 새해는 심장이 지퍼올리는 증상의 불길로 새해를 맞이하는 어머니조국에 축복의 인사를 드린 간선의 로동자, 그들과 함께 맞고보던 격동적인 이해의 첫머리가 우리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러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1강철직장 사람들은 사람들로 북비었다. 용을 쓰는 전기로들, 잠입물바가지들 물고 분주히 오가는 천정기둥들, 혁신의 소식을 전하는 방송원의 격동적인 목소리...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초고전력전기로의 동등높은 1강철직장으로 달려나오는 수많은 강선사람들로 하여 현장은 사람바다를 이루고있었다.

빛나는 한해의 결속과 격동적인 새해의 시작을 경축하게 될 쇠물복포를 보지 않고서야 어찌 강선사람이라고 하랴. 기업소책임일꾼들과 로동자

들은 새해의 첫날은 크나큰 격동속에 밝았다. 격동속의 새해는 심장이 지퍼올리는 증상의 불길로 새해를 맞이하는 어머니조국에 축복의 인사를 드린 간선의 로동자, 그들과 함께 맞고보던 격동적인 이해의 첫머리가 우리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러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1강철직장 사람들은 사람들로 북비었다. 용을 쓰는 전기로들, 잠입물바가지들 물고 분주히 오가는 천정기둥들, 혁신의 소식을 전하는 방송원의 격동적인 목소리...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초고전력전기로의 동등높은 1강철직장으로 달려나오는 수많은 강선사람들로 하여 현장은 사람바다를 이루고있었다.

빛나는 한해의 결속과 격동적인 새해의 시작을 경축하게 될 쇠물복포를 보지 않고서야 어찌 강선사람이라고 하랴. 기업소책임일꾼들과 로동자

들은 새해의 첫날은 크나큰 격동속에 밝았다. 격동속의 새해는 심장이 지퍼올리는 증상의 불길로 새해를 맞이하는 어머니조국에 축복의 인사를 드린 간선의 로동자, 그들과 함께 맞고보던 격동적인 이해의 첫머리가 우리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러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1강철직장 사람들은 사람들로 북비었다. 용을 쓰는 전기로들, 잠입물바가지들 물고 분주히 오가는 천정기둥들, 혁신의 소식을 전하는 방송원의 격동적인 목소리...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초고전력전기로의 동등높은 1강철직장으로 달려나오는 수많은 강선사람들로 하여 현장은 사람바다를 이루고있었다.

빛나는 한해의 결속과 격동적인 새해의 시작을 경축하게 될 쇠물복포를 보지 않고서야 어찌 강선사람이라고 하랴. 기업소책임일꾼들과 로동자

들은 새해의 첫날은 크나큰 격동속에 밝았다. 격동속의 새해는 심장이 지퍼올리는 증상의 불길로 새해를 맞이하는 어머니조국에 축복의 인사를 드린 간선의 로동자, 그들과 함께 맞고보던 격동적인 이해의 첫머리가 우리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러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1강철직장 사람들은 사람들로 북비었다. 용을 쓰는 전기로들, 잠입물바가지들 물고 분주히 오가는 천정기둥들, 혁신의 소식을 전하는 방송원의 격동적인 목소리...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초고전력전기로의 동등높은 1강철직장으로 달려나오는 수많은 강선사람들로 하여 현장은 사람바다를 이루고있었다.

빛나는 한해의 결속과 격동적인 새해의 시작을 경축하게 될 쇠물복포를 보지 않고서야 어찌 강선사람이라고 하랴. 기업소책임일꾼들과 로동자

## 막장에 내려치는 결사관철의 정신

형용 탄광 탄부들

세해공동사설을 받아들인 형용탄광의 탄부들이 드세한 공격전으로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고있다. 형용탄, 대성탄, 중성탄을 비롯한 모든 강, 중대, 소대에서 혁신적성과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탄전에 내세우는 혁신의 기상은 올해의 대교조선군에서 기어이 승리자가 되려는 탄부들의 혁명적 열의를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김장용, 김성호, 리성호동무들을 비롯한 일꾼들은 경계를 하나씩 밟고 탄부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가슴속에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심어주면서 현장지휘를 짜고치고있다.

공업의 식량인 석탄을 팡팡 생산하여 인민생활대교조의 불길에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려는것이 이곳 탄부들의 의지이다. 막장에 서는 때없이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나서고있지만 그

## 불같은 경쟁열의

열탄군에 가면 일 잘하기로 소문난 형제작업반장이 있다. 그들은 장운협동농장 3대형명봉은 제3작업반 반장인 리중환동무와 그의 동생인 신홍농장 제5작업반 반장 리중남동무이다.

20여년간 작업반장으로 일하고있는 리중환동무는 작업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놓고 해마다 땅의 지력을 높여 알곡수출을 늘이고있다. 이런 그는 농장원들은 열정자, 농학박사라고 부른다.

신홍농장 제5작업반 반장인 동생 리중남동무는 비록 형보다 경험은 적지만 용이 일본새로 하여 농장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하루동안에 농장에서 수십리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수심의 질 좋은 기름을 운반해온것을 비롯하여 그는 새해농사치부러 잡도리를 단 단히 하고 달려붙었다.

새해공동사설을 받아들인 형제작업반장은 이렇게 약속하였다.

본사기자 정성일

## 계속혁신, 계속전진에로 부르는 진군가

강성대국건설의 시간표를 정하고 최후승리를 향해 달려나와 앞선 교대 용해공들과 출강의 기쁨을 맛본 교대생원들이 함께 일손을 놀리고있다.

강선로동계급의 역센 신념이든듯 시련의 강풍들이 불의 대하를 이루어 줄기처럼 뻗어나가는 속에 새해의 첫머리가 만들어졌다.

누구나 쉽게 맞붙수 없는 남다른 의열속에 새해를 맞은 5부자용해공과정의 형제들인 지정호, 지정삼로장의 모습에도, 남비와 쇠물주구상대를 세심히 살피고나서 무의팔복을 흔들여보는 조폭공들의 얼굴에도, 들이서며 씩 웃는 용해공의 모습은 출강의 시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가슴에 환희의 불을 지켰다.

겨름내기로 출강이 시작되었다.

로와 같이 살면서 늘 보아오는 출강의 순간이지만 보고 또 보아도 마음이 호호해진다는 장쾌한 광경이었다.

눈부신 화광, 남비에 거침없이 쏟아져 넘실거리는 주홍빛 쇠물...

용해공들의 얼굴에 미소가 어렸다.

쇠물담비가 천정기둥에 매달려 뒀속피폭정으로 넘어갔다.

본사기자 정성일

## 역세계 걷는 보답의 길

모란봉구역의 약물관리소 노동자 김혜숙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살이 굵고 보람은 결코 지키면 할 말도 있고 할 일을 누리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창조와 투쟁속에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모란봉구역의 한 일꾼으로부터 최철발전조선군을 적극 지원하고있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의약품관리소 노동자 김혜숙동무였다. 우리를 감동시킨것은 그가 몇해전에 남편을 잃은 전사자가족이라는 사실이었다.

만나보니 소박하고 평범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전사자의 평정에서 것처럼 생을 빛나게 살 결심을 다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큰 결심을 내는 김혜숙동무, 그는 지난해에도 최철발전조선군장에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해 보내주었고 얼마전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분배를 받기 위하여 영광을 지니었다.

술을 즐기며 시작한 그 길에 가슴속사연도 많으련만 그는 자신이 해놓은 일에 대하여 자랑할 줄 몰랐다. 한 일보 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할 뿐이었다.

《앞서서 눈물이나 흘리는 연

## 농장원들이 좋아하여야 한다

강서분무기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

노래 《승리의 길》과 새해공동사설을 받아들인 강서분무기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기어이 해결하기 위한 올해의 총공격전에 펼쳐나선 농업전선에 더 많은 배낭식분무기를 생산하여 보내 줄 것이라는 열의에 넘쳐있다.

인민생활문제로써 농업전선은 생명선이다.

우리로 농업전선에 함께 선 심정으로 올해에 기어이 분무기생산능력을 종전보다 10배로 높이고자 농업생산에 실적으로 이바지하자!

이런 의지를 안고 공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혁신적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자신들이 수행하여야 할 위업입니다.》

《노래 《승리의 길》과 새해공동사설을 받아들인 강서분무기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기어이 해결하기 위한 올해의 총공격전에 펼쳐나선 농업전선에 더 많은 배낭식분무기를 생산하여 보내 줄 것이라는 열의에 넘쳐있다.》

인민생활문제로써 농업전선은 생명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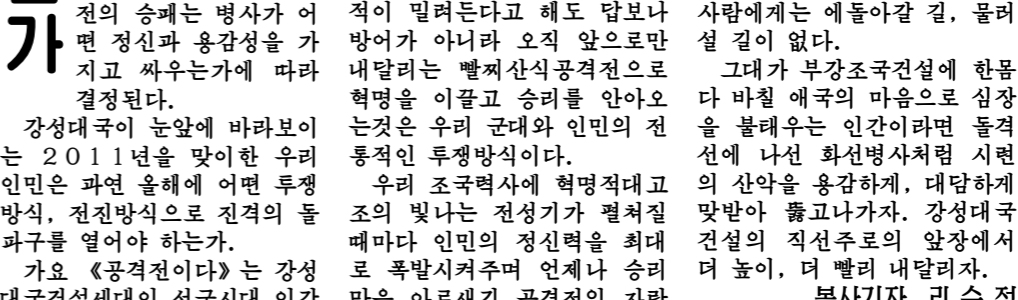
우리로 농업전선에 함께 선 심정으로 올해에 기어이 분무기생산능력을 종전보다 10배로 높이고자 농업생산에 실적으로 이바지하자!

이런 의지를 안고 공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혁신적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자신들이 수행하여야 할 위업입니다.》

본사기자 리경일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불길굴공사에서 날라운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최철발전조선군 함해남도려단의 전투원들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그날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농장원들이 좋아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쓰기에 편리하도록 개조합니다.》

일련의 부분물들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 다시 벌어졌다. 일부 생산공정을 고치고 형태를 다시 제작하니 품이 들었다. 그러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질 좋은 쓰기에 편리한 분무기를 생산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나갔다.

그렇게 만든 배낭식분무기에 대한 농장원들의 수요는 대단히 높았다. 농장원들은 지금까지 리용해는 배낭식분무기에 비하여 성능도 좋고 질도 높으며 쓰기에 편리하다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지방에 흔한 원료와 자체에 의거하여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을 1.5배로 넘쳐 수행한 공장에서는 올해에 종전보다 생산능력을 10배로 높일 대단한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배인을 비롯한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자제의 힘으로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꾸리고 CNC화하기 위한 전투에 달려붙었다.

이런 결심에 공업일꾼들과 기술자들은 《승리의 길》노래를 높이 부르며 새해 첫걸음부터 신심과 락관에 넘쳐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본사기자 리주봉

# 우리는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 북남대결상태의 해소는 현실의 절박한 요구

새해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에 접한 우리 겨레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조국통일구호로 더욱 세차게 부풀어오르고 있다. 이 시각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통일만이 살길이라는 역사적 진리를 다시금 절감하면서 자주통일대강인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끼리의 정진력을 발동하여 조국통일업무를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분열의 비극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과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통일번영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숙원이자,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보다 더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은 없다.

새해공동사설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야 할 회망의 년대, 통일과 번영의 년대이며 올해는 바로 그 첫해이다. 온 겨레는 어떻게 하나 올해의 조국통일대행진에서 획기적 전진을 이룩하는것으로써 만년을 무릅쓰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기쁘고 실천하려는 조선민족의 꾀수를 없는 의지와 불굴의 기상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새해공동사설에 천명된것처럼 우리 민족이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여야 한다.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여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온갖 심의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보수당국은 이지도 않는 누구의 《도발회칙》에 대해 떠들며 반공화국대결과 전쟁도발책동의 도수를 더한층 높이는것으로 우리에게 도전해나갔다. 그들은 의사와 함께 전례없이 악랄한 반공화국도발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극도로 첨예화시켰다. 지난해초부터 반공화국대결책동에 피눈이 되어온 남조선집권계층은 《천안》호침몰사건과 영평도교역사건을 일으켜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판내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만해 전경의 불길기 터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국면으로 끌어갔다.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전쟁발발의 위험이 성대며 조국통일대행진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가운데서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다. 북침위협이 없어져야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가 해소될수 있다.

대화와 대결, 평화와 전쟁은 쌍립될수 없다. 지금과 같이 북남관계가 대화도 접촉도 협력도 없는 대결과 전쟁적

## 온 겨레를 단결로 부르는 고귀한 지침

지금 해외의 온 겨레는 커다란 포부와 희망을 안고 새해의 통일진군에 열쳐나서고 있다. 60여년의 기나긴 세월 나라의 분별로 인해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당해온 우리 민족은 누구나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에는 기어이 통일번영의 새 아침을 맞이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겨레의 넘쳐나고 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는가 못내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려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사람은 애국자로 되고 민족대 단결을 지어하는 사람은 배국자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명언은 분열된 조국에서 사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애국과 배국을 가르는 시금석은 무엇이며 참된 애국에 살지않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가장 명철한 해답을 준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 담보이다.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이 깎일때 무시당하는것을 용납할 민족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 민족은 장강 60여년동안이나 의사에 의하

## 민족중시의 립장에 서야 한다

우리 겨레가 새해공동사설이 강조한바와 같이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야 할 회망의 년대, 통일과 번영의 년대이며 올해는 바로 그 첫해이다. 온 겨레는 어떻게 하나 올해의 조국통일대행진에서 획기적 전진을 이룩하는것으로써 만년을 무릅쓰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기쁘고 실천하려는 조선민족의 꾀수를 없는 의지와 불굴의 기상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새해공동사설에 천명된것처럼 우리 민족이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여야 한다.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여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온갖 심의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보수당국은 이지도 않는 누구의 《도발회칙》에 대해 떠들며 반공화국대결과 전쟁도발책동의 도수를 더한층 높이는것으로 우리에게 도전해나갔다. 그들은 의사와 함께 전례없이 악랄한 반공화국도발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극도로 첨예화시켰다. 지난해초부터 반공화국대결책동에 피눈이 되어온 남조선집권계층은 《천안》호침몰사건과 영평도교역사건을 일으켜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판내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만해 전경의 불길기 터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국면으로 끌어갔다.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전쟁발발의 위험이 성대며 조국통일대행진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가운데서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다. 북침위협이 없어져야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가 해소될수 있다.

대화와 대결, 평화와 전쟁은 쌍립될수 없다. 지금과 같이 북남관계가 대화도 접촉도 협력도 없는 대결과 전쟁적

##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심정으로

조국의 방방곡곡에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의 동음이 기운차게 울릴 때 강성대국건설의 기차축은 더 힘차게 내달려 나갈 것이고 통일의 원수들은 절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그만큼 당겨져 될 것이다.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마땅히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열의와 힘을 다해야 한다.

새해공동사설에서는 농업전선을 인민생활개선사업의 생명선으로 내세웠다.

우리는 농사를 잘 짓는것이 곧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한층더 힘써야 한다.

우리는 농사를 잘 짓는것이 곧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한층더 힘써야 한다.

## 불순한 야망을 드러낸 정치적도발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인권위원회》라는것을 내세워 그 무슨 《3단계정책도발》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보수파당은 우리에게 터부나 고지 《국제인권규범수준》과 《인권보장조약》을 요구하였다. 지어 《북인권조약》과 《사법부독립》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3단계정책도발》에는 또한 국무총리실 《북인권》문제를 주관하며 그것을 감시, 여론화하고 《대북방송》 및 《베라살로》, 반공화국도발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계획들이 들어있다.

남조선에서 현 보수당국이 등장한 이후 반공화국 《인권》소동이 광기를 띠고 맹장전에는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광범위하게 제도적으로 감행된것은 없었다. 피퇴들의 그 무슨 《3단계정책도발》의 발표는 우리에게 대한 엄청난 정치적도발이다. 그것은 존엄높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극도로 격대시하면서 어떻게 하나 해치고 끝수에 한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남조선보수파당의 책동이 도저히 북과할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번에 《3단계정책도발》다는것을 들으니 남조선 《인권위원회》도 말하면 《인권공약》의 미명하에 피퇴당국의 파소압정치와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맨 앞장에서 실행하는 더러운 도구까지 지니고 있다는것을 폭로한다. 특히 지난해에 남조선집권세력은 저들의 반민주, 반인권을 가리우기 위해 범죄적경향을 가진 성원들을 《인권위원회》에서 내쫓고 그 자리에 국우보수적인 인권의원들을 들여앉히는 망종을 부렸다. 이때부터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뇌물을 쓴 파소압정치의 집적체로, 남조선의 인권문제를 아니라 모략적인 《북인권》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반공화국대결기구로 확고히 전락하였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의 인권단체들이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원회는 죽었다.》고 울분을 터뜨리고있었는가.

남조선보수파당이 이런 대결기구를 내세워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열을 올리려는 가스름기 지났다. 사실상 보수파당은 자주권을 의사의 군화발발에 내맡기고 인민들의 초보적

## 전쟁광신자들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차상보 제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리명박정권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리명박정권이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으로 신성한 조국통일에 해를 끼치는 공화국의 자제와 인민력을 증오한다고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와 세계평화에 호소하는 규탄에 불응하고 북침전쟁불장난을 매일같이 벌이고있는 리명박정권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파괴하며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발원하는 주범이라고 단죄하고 단죄하는 강조하였다.

## 리이 단애 해체를 주장

남조선피퇴당국이 콩크리트장벽을 구축한지 31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라이조선연립회가 지난해 12월 2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현실은 콩크리트장벽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넘치는 전제 조건인민과 세계평화에 호소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31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세계는 조선민족의 분열과 대결의 상징인 콩크리트장벽이 과연 누구에게 필요한가를 다시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북남사이에는 대화

## 규탄배격발는 대결정책

남조선의 수백개 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평화포럼》은 호소문을 통해 조선반도에 전쟁을 불러올수 있는 모든 긴장고조행위를 중지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 수원역앞에서 열린 《리명박정권은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자》 시위대회에서 구제역이 무리로 발생하였다. 특히 충청남도에서 구제역이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3일 충청남도 천안과 보령, 경상북도 영천과 경주, 남

계속 확대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구제역 발생 지역은 90여곳으로 늘었다. 【조선중앙통신】

